

제천~동해간국도38호선강원도구간확장공사조기착공건의문
(제8회 임시회시 채택)

2010년까지 확장 완료 계획된 충북 제천 - 강원 삼척간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공사 추진에 있어서, 충북구간 12km에 대하여 년내에 우선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개발정책에 소외되어온 10만 삼척시민은 물론, 50여만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의 강원도 무대전에 대한 원성이 첨예하게 확산되고 있어, 만부득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부정책 집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도38호선 강원도구간 확장공사 조기착공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국가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편의위주로 정부가 각종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수도권과 정부축에 치중된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이 가운데도 특히, 우리 삼척시를 포함한 강원남부지역은, 태백산맥을 축으로 동서, 대관령을 축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열악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변변한 간선도로망 하나 건설되지 않은 철저히 소외받은 지역이라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강원남부 간선도로망 구간에 위치한 우리 삼척시를 비롯하여, 인근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지역은, 국내 굴지의 산탄지역으로써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이후 폐광이 속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 존폐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으며,

이 지역주민 모두는 생존권 확보를 위한 관광산업등 대체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을만큼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체산업유치 등
피눈물어린 지역희생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측과 동서측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불비로 인하여,

동해시 북평공단과 삼척 도계, 태백 철암, 정선 증산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단지내 입주희망 업체가 없을 정도로 간선도로망의
조기 확충이 전국 여타권역 보다도 매우 절박한 실정입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폐광지역지원특별법안이 만약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불비한 도로망을 가진 지역에, 어느 사업자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개발사업비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의심되기까지도 합니다.

최근에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건설교통분야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중 전국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보면, 국도 38호선 구간인 충북
제천~강원 삼척구간 확장은 2011년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기 시행중인 강원 정선 고한~태백 싸리재터널공사 14.3km와,
년내 착공예정인 충북구간 12km를 포함한 국도38호선 전체구간확장
사업은, 14대 대선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년차적으로 시급한
구간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구실로 밖에 귀결지을수 없으며, 기타 잔여구간은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충북 제천에서 강원도 삼척까지의 노선은 국도 38호선의 동일
구간이면서도, 건설교통부가 2011년이후 건설 계획임을 발표해놓고
충북 제천구간(12km)만 년내에 우선 착공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아직까지도 지역주민 다수가 절실히 요구하고있는 지역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채 행정편의 위주의 지역적 실리추구방향으로 구태의연하게 추진된다는 것에 더더욱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힘없는 강원남부지역은 계속 소외시켜도 좋다는 정부의 편협된 정책집행을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최우선 지역개발정책목표가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는 만큼, 편중된 권역별 지역개발정책을 즉각적으로 수정하여, 국도38호선의 강원도구간이, 다가올 2000년대의 동해안 북방교역과 환태평양교역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는 중심도로망인 동시에,

지역주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강원 남부지역 주민들의 경제희생의 원천이 되는 간선도로망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냉철히 직시하여,

국도 38호선 강원도 잔여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주실 것을, 우리 10만 삼척시민과 우리시의회 15명 전체의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0. 10

강원도삼척시의회 신상균의장외14인 의원일동

“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 춘천 봉의 15 / 전화(0361)54-2011, 241-4078 / 담당 : 김 용 래

문서번호 도로 58710- 0903

시행일자 1995. 11. 2. (년)

수신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제목 지역현안 건의사항 회신

1.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2. 도지사 삼척시 방문시 건의하신 7번국도 근덕-장호구간의 통신케이블 매설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연차적으로 갯길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 의회에서 시급한 구간을 선정하여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건의하여 주시면 다른곳에 우선하여 노면포장을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었으며,
4. 동해안 시군 사회간접시설 대폭 확충추진은 국도38호선의 조기확장을 위하여 우리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앙부처에 건의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도7호선 삼척-울진간 4차선확장은 '97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 원 도 지

